

3 이단(사이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제102회기 이단(사이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영남
서 기 유웅상

1. 조 직

- 위 원 장 : 김영남
- 서 기 : 유웅상
- 회 계 : 김용출
- 총 무 : 이종철
- 부위원장 : 원 철
- 부 서 기 : 박철수
- 부 회 계 : 이춘만
- 부 총 무 : 손이성
- 분 과 장 : 연구분과장 오명현 / 연구분과서기 박주일
조사분과장 이억희
대책분과장 김종원
- 전문위원 : (교 수) 김길성 심창섭 김지호
(상담소장) 이덕술 신현욱 김진우 고흥종 주기수 강신유 김종한 황의중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7. 12. 27(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단대책위 조직을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영남 목사 부위원장: 원 철 목사
서 기: 유웅상 목사 부서기: 박철수 목사
회 계: 김용출 장로 부회계: 이춘만 장로
총 무: 이종철 목사 부총무: 손이성 목사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 서기: 박주일 장로
조사분과장: 이억희 목사 서기: 박철수 목사
대책분과장: 김종원 목사 서기: 손이성 목사
- ② 차기 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기로 하다.
가. 임원회의는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11시,
나. 전체회의는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11시 30분에 총회회의실에서 하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1. 11(목) 11:4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대전노회 배명수 씨가 현의한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은 총회현장에서 다루기 전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룬 후에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자는 현의대로 1차적으로 이대위에서 다룬 후 총회안건으로 다루기를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② 삼산노회 장기호 씨가 현의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조사분과에(위원장 이억희) 맡겨 현의한 노회의 의견을 들은 후 보고 받기로 하다.
- ③ 동광주노회 이승범 씨가 현의한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의 건”은 동 건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연)”에 협력하기로 하다.
- ④ 2월 첫주 이단경계주일 기독교신문 광고의 건은 서기 유웅상 목사에게 맡겨 광고 게재하기로 하다.
- ⑤ 제102회 총회에서 예의 주시기로 한 김노아 씨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출 서류의 재조사와 함께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하다.
가. 위원: 김영남, 유웅상, 김용출, 이종철, 오명현, 이억희, 박철수
- ⑥ 전문위원 및 상담소장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⑦ 이단대책 세미나 사업일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다.

월/ 일	장소	비고
2월 22일(목)	경남: 부산 부전교회	
3월 15일(목)	서울: 꽃동산교회	
4월 26일(목)	중부: 새에덴교회	미주세미나
5월 24일(목)	제주: 제주시	
6월 21일(목)	경남: 울산 대암교회	
7월	강원: 춘천 온누리교회	
8월 23일(목)	인천: 성산교회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1. 29(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본 위원회 제101회기에서 연구한 결과 이단성이 있어 제102회 총회에서 “예의주시”하기로 결의한 김노아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가 된 건에 대하여 한기총에 우려의 공문을 제101회 연구자료를 첨부하여 보내기로 하다.
- ② 새로 개설한(101회기 이대위) 홈페이지(총회이단.aub.kr)를 사용키로 하고, 사용료도 지불하기로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4. 19(목) 11:30

☞ 장 소 : 새에덴교회

☞ 결의사항

- ① 제주지역세미나를 5월 24일(목) 동홍교회(박창건 목사 사무)에서 갖기로 하다.
이대위세미나를 23일 ~ 24일 오전까지 제주에서 하기로 하다.

이대위세미나와 이단대책세미나는 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겨 진행키로 하다(23일 ~24일).

- ② 미주세미나(뉴욕, LA)를 7월 16일 주간으로 하고 일정과 강사 진행을 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겨 진행키로 하다.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5. 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주지역 이단대책세미나를 서귀포 동홍교회(박창건 목사 시무)에서 5월 24일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개최키로 하다.
- ② 미주 세미나는 LA열린문교회에서 7월 20일(금)에 하기로 하다.
- ③ 정이철 목사의 신학적 문제의 건은 조사 분과와 연구 분과에 맡겨 연구 조사키로 하다.

(6) 제6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7. 1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키로 하다.
- ② 김희선 장로가 진용식 목사를 고발한 건은 임원회에 맡겨 김희선 장로와 진용식 목사를 출석케 하여 확인 조사키로 하다.
- ③ 102회 총회에서 1년간 예의 주시키로 한 김노아, 정동수, 김성로 씨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출석 요구하여 조사키로 하되 김노아씨의 조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5인(원철, 유용상, 이종철, 손이성, 김용출)과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와 조사분과장 이억희 목사가 참석키로 하다.
- ④ 정이철 목사 조사의 건은 임원회와 오명현 목사 이억희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7) 제7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8. 8(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조사연구위원 원철, 이종철 목사의 연구서 보고를 다음 임원회에서 받고 최종 결의키로 하다.
- ② 김노아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102회 총회가 결의한 이단성 보고와 1년간 예의 주시하기로 한 내용대로 오명현 목사, 이억희 목사(위원)에게 보고케 하고 다음 임원회에서 받아 최종 결의키로 하다.
- ③ 정동수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102회 총회가 결의한 이단성이 있으나 회개한다하여 1년간 예의 주시하기로 한 내용에 근거하여 유용상 목사, 손이성 목사에게 보고케 하고 다음 임원회에서 받아 최종 결의키로 하다.
- ④ 정이철 목사 신학사상 조사의 건은 연구분과장 오명현 목사와 조사분과 위원장 이억희 목사의 보고를 들은 결론은 이단대책위원장 김영남 목사, 서기 유용상 목사도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여 결론하기로 하다.
- ⑤ 전태식 목사와 최바울 목사에 관한 청원의 건은 다음 위원회에 다루기로 하다.



- ⑥ 8월 17일(금) 11시 임원회를 갖기로 하다.

2) 임원회의

(1) 제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7. 10. 13(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단대책위원회 결원된 위원으로 이억희 목사를 선정하다(조사분과장).
- ② 전문위원으로 총신, 대신, 광신대학원에 교수를 추천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③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가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 ④ 이단대책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다(제작비, 서버비 지출).
- ⑤ 제102회기 사업계획은 차기 임원회에 의논하기로 하다.
- ⑥ 원주세미나는 11월 9일(목) 원주중부교회에서 하기로 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다.

(2) 제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7. 11. 22(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서대전노회 배명수 씨가 현의한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은 위원장이 일차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신학부에서 이첩한 삼산노회 장기호 씨가 현의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12월 14일(목) 오전 10:00에 현의한 당사자 임계빈 목사를 소환하기로 하다. 강덕섭 목사는 19일(화) 오전 10:00에 소환하기로 하다.
- ④ 동광주노회 이승범 씨가 현의한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의 건”은 유대연과 협력하여 제정하기로 하다.
- ⑤ 지역별로 이단대책세미나를 순회하며 하기로 하다.
호남(목포: 영암삼호교회 2018.1.11.), 경남(부산: 부전교회 2.22), 서울(꽃동산교회 3.15), 중부(새에덴교회 4.26), 제주(제주시 5.24), 경남(울산: 대암교회 6.21), 강원(춘천: 온누리교회, 7월), 인천(성산교회 8.23), 미주세미나(동부, 서부 2회 4월 9일, 12일), 동남아세미나(10월중)
- ⑥ 세미나 예산은 국내 1회 350만원*8지역= 2800만원, 미주(2지역 1500만원), 동남아(800만원), 이단대책위원세미나(800만원), 현의된 이단 연구(500만원), 회의비(500만원)
- ⑦ 이용도 목사의 신학과 영성 재조명 심포지엄 참석 요청의 건은 참석하지 않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 1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대전노회 배명수 씨가 현의한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은 현의대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루고 총회 안건으로 다루기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 ② 삼산노회 장기호 씨가 현의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기로 하다.
- ③ 동광주노회 이승범 씨가 현의한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의 건”은 동 건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연)”에 협력하기를 전체회의에서 논의기로 하다.
- ④ 전문위원 및 상담소장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 가. 전문위원: 심창섭 교수, 문병호 교수, 김지호 교수
목사- 오정호, 소강석, 김희백, 이형만, 정이철, 진용식
 - 나. 상담소장: 이덕술 목사(서울) 고흥중 목사(인천) 진용식 목사(경기, 충서)
김덕연 목사(충부) 김종한 목사(호남) 오명현 목사(전북) 강신유 목사(광주)
황의중 목사(영남) 주기수 목사(경인) 김건우 목사(강남) 신현욱 목사(구리)

(4) 제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 26(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세미나 일정을 확정하여 1차 세미나(부산 부전교회, 2월 22일) 광고 시에 함께 광고기로 하다.
- ② 경남 지역 이단대책세미나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기로 하다.
 - 가. 일시: 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 나. 강사: 오명현 목사, 신현욱 목사(상담소장)
 - 다. 예배순서는 임원과 지역을 안배하여 배정하기로 하다.
- ③ 김희백 목사는 전문위원에서 삭제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2. 22(목) 11:30

☞ 장 소 : 부산 부전교회

☞ 결의사항

- ① 제3차, 제4차 전체 임원회의록을 채택하다.
- ② 서울지역 이단대책세미나를 3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에 꽃동산교회에서 개최기로 하다.
- ③ 세미나 강사 및 순서자는 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겨 선정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3. 15(목) 11:30

☞ 장 소 : 서울 꽃동산교회

☞ 결의사항

- ① 경기 중부지역 세미나를 4월 19일(목)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갖기로 하다.
준비사항은 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5. 24(목) 12:00

☞ 장 소 : 제주 동홍교회

☞ 결의사항

- ① 부울경 지역 이단대책 세미나를 울산대암교회에서 6월 21일 13:30에 개최기로 하고 강사와



순서는 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②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는 7월 중에 LA지역에서 하기로 하고 강사 및 순서는 위원장, 서기, 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6. 21(목) 11:30

☞ 장 소 : 울산 대암교회

☞ 결의사항

- ① 이단대책 책자를 발간하되 임원회에 맡겨 하기로 하다.
- ② 강원지역 이단대책세미나를 7월 12일 춘천 온누리교회에서 하기로 하다.

(9) 제9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7. 12(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단대책 책자 발행의 건은 임원회에서 진행키로 하다.
- ② 김희선 장로가 진용식 목사를 고발한 건은 원철, 유웅상, 이종철, 손인성, 김용출 5인에게 맡겨 2인 모두 출석케 하여 조사키로 하다.
- ③ 102회 총회에서 1년간 예의 주시키로 한 김노아, 정동수, 김성로씨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 확인키로 하다.

(10) 제10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7. 1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정이철 목사 신학사상 조사의 건은 8월 1일 11시 출석 요구키로 하다.
- ②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7월 26일 10시30분에 현의한 노회(삼산노회)장과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하고 강덕섭 목사는 7월 26일 11시에 출석 요구키로 하다.
- ③ 김희선(한기총 질서위원장) 장로의 진용식 목사 고발장의 건은 한기총의 발신의 건임으로 다루지 않기로 하다.
- ④ 102회 총회에서 1년간 예의 주시키로 한 김노아씨는 7월 26일 오후 1시 출석 요구하여 조사키로 하다.
- ⑤ 102회 총회에서 1년간 예의 주시키로 한 정동수씨는 7월 26일 오후 2시 출석 요구하여 조사키로 하다.
- ⑥ 26일 조사 질의 분은 강덕섭의 건은 원철 이종철, 김노아의 건은 오명현 이역희 정동수의 건은 유웅상 손이성 목사가 담당키로 하다.
- ⑦ 통합교단 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요청한 이광복 목사의 본교단 입장의 건은 총회결의된 것이 없음을 회신키로 하다.

(11) 제1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7. 26(목) 10:1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강덕섭 목사의 조사의 건은 8월 3일 10시 30분에 재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강덕섭 목사 조사를 현의한 삼산노회장은 동일 11시 재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 ③ 김노아 목사 조사의 건은 8월 3일 11시 30분 재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 ④ 정동수 목사 조사의 건은 오늘 오후 1시로 변경하기로 하다.
- ⑤ 정동수 목사가 출석하여 102총회 결의대로 수정하였는지 소명 및 조사하다.
- ⑥ 8월 3일 오전 10시 10분 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12) 제1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8. 3(금) 10:1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김노아씨 조사의 건은 김노아씨 요청대로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로 하다. 질의서는 이억희, 오명현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② 감리교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철 목사가 청원한 이인규 권사 이단지정 요청의 건은 다루지 않기로 하다(내용이 잘못된 문서이므로).
- ③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를 청원한 삼산노회 서기 윤남철 목사가 출석하니 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다. 강덕섭 목사에게는 원철 목사에게 맡겨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다.
- ④ 강덕섭 목사 조사연구질의위원 원철, 이종철 목사
김노아 목사 조사연구질의위원 오명현, 이억희 목사, 김용출 장로
정동수 목사 조사연구질의위원 유웅상, 손이성, 김영남 목사
정이철 목사 조사연구질의위원 연구위원분과 오명현, 박주일, 조사분과장 이억희, 박철수 목사에게 1인당 30만원씩 연구비를 지출하기로 하다.
- ⑤ 8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임원회의,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하기로 하다
- ⑥ 이단대책세미나 강의 원고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103회총회시에도 배부하기로 하다. 원고는 서기에게 맡겨 정리하기로 하다.
- ⑦ 정동수 목사에게 영여 킹제임스성경유일주의(킹제임스성경은 원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전혀 없이 보존되었다 주장) 주장 관련 내용을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주장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기로 하다. 질의서는 유웅상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⑧ 총회이단대책세미나 개최 시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이단예방에 대한 파워포인트 CD를 제공한 오명현 목사에게 제공한 300여개의 제작실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13) 제1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8. 8(수) 10:1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체회의에서 강덕섭 목사의 건, 정동수 목사의 건, 정이철 목사의 건을 다루기로 하다.
- ② 전태식 목사의 건, 최바울(인터콥)선교사에 관한 청원의 건은 다음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14) 제1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8. 17(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삼산노회장이 현의한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은 기독교대한감리교 감독회장 이철 목사와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건구 목사가 감리회 소속 목회자이므로 감리교이단대책위원회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감리교이단대책위원회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가결하다.
- ② 김풍일 조사의 건은 별지대로 받고 김풍일 목사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24일 출석 요청키로 하다.
- ③ 정동수 이단 조사의 건은 이단성이 있어 보여 참여 금지하고 2019. 5. 31까지 동내용의 책자 폐기 및 인터넷 삭제 여부를 예의주시키로 하다.
- ④ 정이철 목사 조사의 건은 “바른믿음”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교단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의 글은 모두 삭제 및 글을 내리기로 지시하고 앞으로도 총신대 교수들의 신학 사상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기로 하다. 단 이단 사상은 없음을 확인하다.
- ⑤ 24일 10:30 임원 및 소위원회로 모이기로 하다.

(15) 제1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18. 8. 24(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김노아(김풍일) 목사가 출석하여 질의하고 대답을 듣다.

15개 사항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다 음 -

본 제102회기 이대위는 김풍일(노아)목사의 사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이단 사상이 있어 보이므로 본 제102회기 이대위는 김풍일(노아)목사의 집회에 참석 및 교류를 금하는 바이며 단 2018년 8월 24일 본 이대위는 김노아(풍일)씨를 최종 소환하여 그의 사상에 대하여 조사한 바 15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수정했고 잘못된 문서들은 수정 내지 폐기하였다고 기독교신문에 성명서로 발표하였으며 그러나 아직도 정통교회와 다른 주장을 했던 문제성 있던 내용이 있는 것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다 삭제하기로 하며 또한 김노아(풍일) 목사가 소속한 교단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2박 3일 동안 받기로 다짐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이 실행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재론하기로 하다.

- ② 재심 요청의 건

가. 전태식 목사의 재심요청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에서 재심을 요청한 건은 재심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하다(총회결의사항).

나.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의 재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장 이계석 목사)에서 재심을 요청한 건은 재심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하다(총회결의사항).

3) 소위원회의

(1) 제1차 소위원회의(김노아 건)

☞ 일 시 : 2018. 1. 26(금)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김노아(김풍일) 씨의 재조사 건은 101회기에서 연구한 결과 이단성이 있고, 102회 총회에서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으므로, 29일(월)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다.

② 1월 29일(월) 오전 10:30에 전체회의를하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이단대책 세미나(강원)

(1) 일 시 : 2017. 11. 9(목)

(2) 장 소 : 원주중부교회당(김미열 목사 시무)

(3) 강 사

제1강 사이버 이단 천부교 경전 서요한 교수(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강 안중희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이덕술 목사(상담소장)

제3강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신현욱 목사(상담소장)

(4) 결 산

수 입		지 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총회예산 연구비5000만원중	1,844,500	예배순서비	830,000
		강사비	560,000
		인쇄비	24,000
		장소비	200,000
		행사진행비	230,500
합계	1,844,500	합계	1,844,500

2) 제102회기 이단대책 세미나(부산,경남지역)

(1) 일 시 : 2018. 2. 22(목)

(2) 장 소 : 부산 부전교회당

(3) 강 사

제1강 이단 대처를 위한 예방 세미나 오명현 목사(상담소장)

제2강 신천지의 실제: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권남귀 실장(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



(4) 결 산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원)	내 역	금 액(원)
총 회 예 산 연구비5000만원중	3,465,000	예 배 순 서 비	1,600,000
		임 원 회 , 일 비	240,000
		강 사 비	530,000
		인 쇄 비	398,000
		장 소 비	200,000
		행 사 진 행 비	497,000
합 계	3,465,000	합 계	3,465,000

3) 제102회기 이단대책 세미나(서울지역)

- (1) 일 시 : 2018. 3. 15(목)
- (2) 장 소 : 서울 꽃동산교회당
- (3) 강 사

제1강 신천지 계시록의 허구를 밝히다 오명현 목사(상담소장)

제2강 안증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이덕술 목사(상담소장)

제3강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신현욱 목사(상담소장)

(4) 결 산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원)	내 역	금 액(원)
총 회 예 산 연구비5000만원중	3,390,000	예 배 순 서 비	1,270,000
		임 원 회 , 일 비	210,000
		강 사 비	810,000
		인 쇄 비	770,000
		장 소 비	200,000
		행 사 진 행 비	130,000
합 계	3,390,000	합 계	3,390,000

4) 제102회기 이단대책 세미나(경기,서울지역)

- (1) 일 시 : 2018. 4. 19(목) 13:30 ~ 16:40
- (2) 장 소 : 새에덴교회당(소강석 목사 시무)
- (3) 강 사

제1강 사이비 이단 천부교 경전 서요한 교수(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강 안증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이덕술 목사(상담소장)

제3강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신현욱 목사(상담소장)

(4) 결 산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원)	내 역	금 액(원)
총 회 예 산 연구비5000만원중	5,000,000	예 배 순 서 비	1,350,000
		임 원 회 , 일 비	210,000
		홍 보 비	1,160,000
		강 사 비	730,000
		인 쇄 비	1,197,000
		장 소 비	200,000
		행 사 진 행 비	153,000
합 계	5,000,000	합 계	5,000,000

5) 제102회기 이단대책 세미나(제주지역)

- (1) 일 시 : 2018. 5. 23(수) ~ 24(목)
- (2) 장 소 : 제주 동홍교회(박창건 목사 시무)
- (3) 강 사
 제1강 신천지 계시록의 허구를 밝히다 오명현 목사(상담소장)
 제2강 신천지의 실체: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권남래(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
 제3강 안증회의 포교방법 및 미혹교리에 대한 대책 이덕술 목사(상담소장)

(4) 결 산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원)	내 역	금 액(원)
총 회 예 산 연구비5000만원중	8,250,320	예 배 순 서 비	2,770,000
		임 원 회 , 일 비	270,000
		홍 보 비	1,000,000
		강 사 비	1,200,000
		인 쇄 비	542,900
		장 소 비	200,000
		행 사 진 행 비	2,267,420
합 계	8,250,320	합 계	8,250,320

6) 제102회기 이단대책 세미나(부산,울산,경남지역)

- (1) 일 시 : 2018. 6. 21(목) 13:30 ~ 16:40
- (2) 장 소 : 울산 대암교회(배광식 목사 시무)
- (3) 강 사
 제1강 신천지 계시록의 허구를 밝히다 오명현 목사(상담소장)
 제2강 신천지의 실체: 포교방법과 미혹교리 권남래(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



제3강 안증회의 포교방법 및 미혹교리에 대한 대책 이덕술 목사(상담소장)

(4) 결 산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원)	내 역	금 액(원)
총 회 예 산 연구비5000만원중	3,435,000	예 배 순 서 비	1,360,000
		임 원 회 , 일 비	330,000
		강 사 비	860,000
		인 쇄 비	425,000
		장 소 비	200,000
		행 사 진 행 비	260,000
합 계	3,435,000	합 계	3,435,000

4. 이단상담소 결과 보고

1) 서울상담소(상담소장 이덕술 목사)

번호	상담 일자	상담 인명	이단 종파	이단기간	상담 유형	상담결과
	2017년					
1	8/29	권○○ 집사 가족	신천지	4개월	내담	신천지 4개월 공부 중에 안산상담소의 안내로 본 상담소에서 회심상담을 받고, 돌아선 후 제자훈련까지 받고 있음.
2	8/30	안○○ 집사 가족	JMS	14개월	내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데 딸이 JMS에 14개월간 심취. 가족과 함께 회심상담 받고 정상신앙생활을 하고 있음.
3	8/30	강○○ 집사 가족	신천지	6개월	내담	신천지 성경공부 중 본 상담소에 서 회심상담 받은 지인에 의해 아내 받고 회심상담 받고 신천지 공부 중단함.
4	9/9	유○○ 가족	신천지	4개월	내담	신천지 성경공부 4개월 차에 친구의 권유로 회심상담 받고 신천지 공부 중단 함
5	9/9	김○○ 가족	신천지	2개월	내담	신천지 2개월 공부 중 이상하게 생각되어 방문 회심상담 받고 분별하여 신천지 공부 중단 함.
6	9/19	박○○ 집사 가족	예수왕권	13년	내담	약혼녀가 결혼일 까지 예정된 상태에서 예수왕권에 13년간 심취되어 있음을 인자하고 회심상담 받게 함으로 돌아섰으며. 결혼 하고 함께 정통교회 출석하고 있음.

번호	상담 일자	상담 인명	이단 종파	이단기간	상담 유형	상담결과
7	9/21	송○○ 집사 가족	신천지	2개월	내담	아내가 신천지 2개월 차에 접어들 때에 인지하여 회심상담 받게 함으로 회복됨.
8	9/27	김○○ 집사 가족	하나님의교회	3년	내담	남편 무교. 아내가 하나님의교회 심취되어 부부간의 갈등 심화. 상담소의 안내를 따라 관계회복 후 아내의 회심상담이 이루어짐. 회심하여 돌아섬.
9	10/14	신○○ 가족	신천지	1년	내담	부모이혼, 본인 수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친이 신천지 약 1년간 다니고 있음을 인지하고 안산상담소의 안내로 본 상담소로 인도하여 회심상담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게 됨
10	10/19	김○○ 가족	JMS	1년	내담	목회자 자녀로서 고3인데 문화 포고에 의해 JMS에 약1년간 심취. 회심상담 후 부친 목회를 돕고 있음.
11	10/23	백○○ 가족	신천지	12년	내담	2006년부터 신천지에 심취한 따님을 위해 반증교리 공부하다가 중단 상태
12	10/23	이○○ 권사 가족	신천지	4년	내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나 따님이 신천지 4년 심취된 상태. 모친께서 반증교육을 받으면서 예방 초치가 된 상태 이며 따님 회심상담 설득 중.
		2018년				
13	1/6	김○○	신천지	7개월	내담	부모가 이혼한 상태, 신천지에 빠진 부친을 위해 딸이 남친과 함께 관계개선에 힘 Tm며 반증교육 중에 있음
14	2/1	강○○	신천지	1년차	내담	부모 이혼한 상태, 신천지에 빠진 여동생을 위해 오빠가 반증교육을 받으며 설득하고 있음
15	3/30	박○○	다락방	3년	내담	부모 이혼한 상태, 다락방 남친의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춘 오빠가 방학 때 상담소로 합RPdhf 예정
16	4/3	박○○	UBF & 신천지	10년	내담	UBF & 신천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식이 심화되어 우울증 현상까지 있어 정신과 치료 병행 상담 중
17	4/5	이○○	구원파 (이요한)	10년	내담	시택이 구원파이므로 영향을 받았으며 친언니와 장녀가 함께 반증교육 필요하고 설득하여 탈퇴시킴
18	5/8	강○○	신천지	2년	내담	신천지 구역장으로 활동 중이며 결혼한 누나가 반증교육 받으며 설득 중에 있음



번호	상담 일자	상담 인명	이단 종파	이단기간	상담 유형	상담결과
19	5/11	송○○	다락방	14년	내담	6살 때부터 부모 따라 나간 다락방에서 오빠가 먼저 반증교육 받고 탈퇴했으며 여동생을 설득 중
20	6/4	신○○	안증회	3년	내담	일반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하나나미의교회 생활을 3년간 했는데 이웃교회 사모님의 인도로 반증상담 받고 탈퇴함
21	6/6	이○○	신천지	센터 2개월	내담	신천지 센터 2개월 모친을 모시고 장녀와 함께 와서 반증교육 받고 탈퇴함
22	6/10	유 ○	신천지	센터 8개월	내담	모친에 의해서 부친까지 신천지 들어감. 대학생 장녀가 반증교육 받으며 회심시키려 준비 중
23	6/17	송○○	대순진리회	약 10년	내담	대순진리회에서 만나 결혼한 딸의 가정을 회심시킴
24	6/19	김○○	안증회	16년	내담	안증회에 빠져 가출한 남동생을 갖 결혼한 누나가 회심시키기 위해 반증교육 중
25	9/20	양○○	신천지	8개월	내담	신학교 졸업한 동생이 신천지 수료자가 되어 울산 부모와 연대하여 반증교육을 통해 회심을 설득하고 있음
28	6/25	김○○○	신천지	1년 6개월	내담	무교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 부모 상담을 하였으나 신앙적 협조가 안 되어서 막막한 상태임
27	7/11	김○○	신천지	1년	내담	교회 청년담당 목사에게 발각되어 가족과 연대하여 상담소로 신속히 인도되어 반증교육을 받게 되어 탈퇴함
28	7/17	임○○	안증회	2개월	내담	천주교 가정의 남편과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증회에 들어감 남편이 반증교육 받고 있음

2) 영남상담소(상담소장 황의종 목사)

전화상담	가족상담	이단상담	이탈	회심	중단	총수
365	52	33	7	22	4	450

번호	상담시작	피상담인명	이단종파	상담유형	결과
1	2017.8.1	신 ○ 재	정동수(킹제임스)	가족참석	회심
2	2017.8.8	김 ○ 현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3	2017.9.3	차 ○ 은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4	2017.9.20	윤 ○ 은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5	2017.10.15	손 ○ 주	안증회	가족참석	회심
6	2017.10.20	이 ○ 효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번호	상담시작	피상담인명	이단종파	상담유형	결과
7	2017.10.30	최 ○ 환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8	2017.11.10	박 ○ 휘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9	2017.11.20	김 ○ 희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10	2017.12.10	이 ○ 희	신천지	가족참석	중단
11	2017.12.20	주 ○ 호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12	2018.1.22	박 ○ 주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13	2018.1.25	하 ○ 순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14	2018.1.30	도 ○ 서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15	2018.1.30	박 ○ 정	신천지	지인참석	회심
16	2018.1.30	박 ○ 성	신천지	지인참석	이탈
17	2018.2.20	신 ○ 재	동방번개	가족참석	회심
18	2018.3.6	김 ○ 규	신천지	지인참석	중단
19	2018.3.20	김 ○ 옥	신천지	가족참석	이탈
20	2018.3.20	손 ○ 화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21	2018.4.10	박 ○ 래	신천지	가족참석	중단
22	2018.4.10	박 ○ 리	신천지	가족참석	이탈
23	2018.4.27	김 ○ 원	구원파	지인참석	회심
24	2018.5.18	김 ○ 은	신천지	가족참석	회심
25	2018.5.20	박 ○ 정	신천지	가족참석	이탈

3) 전남상담소(상담소장 김종한 목사)

번호	상담일자	상담인명	이단(사이버) 종파	상담유형	상담결과
1	8/21	박 ○ 현	신천지1년	내담	가족상담
2	9/1	배 ○ 자	신천지5년	내담	상담 후 회심
3	9/4	김 ○ 희	신천지3년	내담	가족상담
4	9/9	이 ○ 혜	센타1개월	내담	상담 후 회심
5	9/17	최 ○ 란	신천지4년	내담	상담 후 회심
6	9/17	최 ○ 지	신천지3년	내담	가족상담
7	9/17	최 ○ 주	신천지1년	내담	가족상담
8	9/18	안 ○ 정	신천지2년	내담	가족상담
9	9/24	이 ○ 서	신천지1년 반	내담	상담 후 회심
10	9/29	손 ○ 희	신천지1년	내담	가족상담
11	9/30	김 ○ 현	센터5개월	내담	가족상담
12	10/13	우 ○ 철	신천지3개월	내담	상담 후 회심



번호	상담일자	상담인명	이단(사이비) 종파	상담유형	상담결과
12	11/2	정 ○ 영	신천지3년	내담	가족상담
13	11/3	박 ○ 미	신천지1년	내담	가족상담
14	11/8	최 ○ 라	신천지2년	내담	가족상담
15	11/14	김 ○ 솔	신천지1년	내담	가족상담
16	11/15	강 ○ 성	3개월	내담	가족상담
17	11/17	신 ○ 애	2년	내담	상담 준비 중
18	12/18	배 ○ 미	1년	내담	가족상담
	2018년				
19	1/8	곽 ○ 호	신천지1년반	내	가족상담
20	1/12	김 ○ 라	신천지5년	내담	가족상담
21	1/14	장 ○ 순 윤 ○ 선	1년 이상	내담	가족상담
22	2/2	김 ○ 수	6개월 주장`	내담	가족상담
23	2/11	신 ○ 애	2년	내담	가족상담
24	2/12	강 ○ 원	1년주장	내담	가족상담
25	2/13	김 ○ 아	3개월	내담	상담 후 회심
26	2/28	이 ○ 희	4개월	내담	상담 후 회심
27	3/5	김 ○ 주	1년	내담	상담 후 회심
28	3/21	김 ○ 현	신천지1년	내담	상담 후 회심
29	4/3	김 ○ 솔	신천지2년	내담	상담 후 회심
30	4/18	이 ○ 찬	신천지3년	내담	가족상담
31	4/25	조 ○ 주	신천지?	내담	가족상담
32	5/22	배 ○ 희	신천지7년	내담	상담 중 상담 거부
33	5/30	김 ○ 현	신천지	내담	가족상담
34	6/20	김 ○ 주	신천지9개월	내담	상담 후 회심
35		이 ○ 석	신천지8년	내담	가족상담
36	7/11	이 ○ 아	신천지5년	내담	상담 중 상담 거부
37	7/14	이 ○ 란	신천지2년	내담	가족상담
38	7/28	정 ○ 자	신천지	내담	가족상담

제102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

1. 불건전한 사상 및 단체,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

서대전노회장 배명수 씨가 현의한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은 총회현장에서 다루기 전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룬 후에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자는 현의대로 1차적으로 이대위에서 다룬 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기로 하다.

2.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의 건

동광주노회 이승범 씨가 현의한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의 건”은 동 건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연)”에 협력키로 하다.

3.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

삼산노회 장기호 씨가 현의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은 감리회 감독회장 이철목사와 이단대책위원장 황건구 목사가 감리교단 소속인 강덕섭 목사를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로 조사할수 있도록 청원한대로 감리교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4. 김풍일 목사의 이단성 규명의 건

수도노회장 권성호씨와 삼산노회장 이봉철씨와 서전주 노회장 정현협씨가 현의한 김풍일씨의 이단성 주장 및 이단과의 연관성 규명의 건

지난 101회기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가 102회 총회에 연구 보고하여 김풍일(노아)목사 이단 사상에 대하여 최종 결론부분에서 “그는 7년 전 회개하고 사과문을 낸 후로 자신의 이단성 있는 교리를 수정하였으며 자신의 교리 책자를 폐기하고 판매 금지하였다고 해명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분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1년 간 예의 주시하기로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풍일(노아)목사가 7년 전에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 회개를 한국교회 어느 교단 누구에게 회개를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찾아볼 수가 없다.

▣ 김풍일(김노아) 목사 이단사상조사 보고

1. 서론

김풍일은 새빛등대중앙교회 목사로 김노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김풍일은 교회 이름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예수교 실로교회에서 실로등대중앙교회로 그리고 새빛등대중앙교회에서 세광중앙교회로 변경하였다. 현재 교단은 예정성서총회라는 명칭으로 한기총에 가입이 되어 있다.

김풍일은 ‘짜’ 이론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천국과 낙원, 구름, 보혜사, 추수군, 생명나무, 동방, 천년왕국 등의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 그의 짜 이론은 유사한 성경 구절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짜으로 대비시키면서 엉터리 해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 그의 주장을 이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그의 보혜사론이다. 그



는 1996년 473쪽에 달하는 [保惠師]란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을 중심으로 그의 이단사상을 우선 논하고 다른 저서들(生命나무, 啓示錄 실상 上下, 永遠한 福音 새 言約, 譬喩와 實狀, 씨의 祕密과 예수 誕生, 生命 나무)의 이단적인 사상을 정리하려 한다.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반성경적인 가르침의 하나는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로 암시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이긴자, 대언자, 선지자로 심판자로 가르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이단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말세의 종으로 암시하거나 지칭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성경적 진리로 절대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2. 본론

1) 김풍일은 자신이 보혜사임을 암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혜사(保惠師)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요 진리를 구하는 모든 자의 대언자요 변호자요 상담자이다. 다만 참 보혜사의 사명 자가 받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요 15:26)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보혜사 p. 3)

2) 김풍일은 보혜사는 영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보혜사, 협조자, 대언자,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다. 이로써 보혜사(保惠師)는 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보혜사 pp. 44-45)

3) 김풍일은 이중 보혜사론을 주장한다.

“보혜사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세대에 위와 같이 혁명적인 논제를 편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며 큰 개혁적인 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과 같이 예수로 온 파라클레트가 있고 또 다른 파라클레트가 있으며 그는 예수를 계승하는 또 다른 페라클레트라고 한 신학적인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느낀다. 이 성경은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로 구분하고 있다.”(보혜사 p. 51)

4) 김풍일은 자신을 통달 성령을 받은 자로 암시한다.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고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였으므로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통달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도 진리의 성령 통달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보혜사. p. 66)

5) 김풍일은 예수의 육체의 재림을 부인하고 빛으로 오신다고 주장한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까지 비취는 것 같이 오시는 주심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는 육체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요 번개와 같이 빛으로 오시는 주임인 것을 알 수 있다.”(보혜사 p. 84)

6) 김풍일은 이 세상의 교권주의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 임금의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써 재판관 받지도 아니하고 이미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또 다른 보혜사’가 출현함과 동시에 이미 지옥가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멸망 받을 자로 결정 된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란 누구를 지칭한 말인가?... 이들이 세상에서 정치와 상관한 음녀들이요 교권주의자들이요 교주들이다. 이들이 땅에서 거룩한 백

성들 앞에서 임금 노릇을 한 가증한 자들이다.”(보혜사 pp. 86~87)

“전술한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하면 이 세상 임금이란 곧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이요 교권주의 자들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출현함과 동시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로서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보혜사 p. 88)

7) 김풍일은 다른 보혜사인 자신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온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이다.”(보혜사 p. 96)

8) 김풍일은 계시록의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인 자신이 사명자임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인봉된 책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인봉된 책을 받아서 펴시므로 개봉된 책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손에 있는 펴 놓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므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있으니 이는 예수로부터 받아먹은 자이므로 예수 아니 다른 사명 자를 상징하고 있다.”(보혜사 p. 105)

9) 김풍일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인 자신이 계시록의 참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까지 계시록에 숨겨진 예언의 참뜻을 알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전 3:1) 또한 지금까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출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언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보혜사 p. 107)

10) 김풍일은 자신이 시온 산의 어린양이며 십사만사천명이 자신의 추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곧 시온 산 어린양은 십사만 사천 인에게 새 노래를 가르치는 자요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명자이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며 새 노래가 이 땅 위에 발표되고 실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세상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겠는가? 새 노래를 부르는 십사만 사천은 어떤 자들인가?”(보혜사 p. 112)

11) 김풍일은 다른 사명자인 자신에게 인침을 받아야 영생하고 왕 노릇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명자인 자신을 통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영생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세상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할 수 있는 자들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보혜사 p. 139).

12) 김풍일은 다른 보혜사인 자신이 사명자로 심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경대로 책망 하시므로써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요 16:7~14).”(보혜사 p. 145)

13) 김풍일은 자신이 천국건설의 사명과 인도의 사명자 임을 주장한다.

“보혜사 곧 시온산 어린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길을 인도할 때에 실상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리..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또 다른 보혜사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보혜사 p. 158).



14) 김풍일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다.

“기록된 말씀[롬 1:3~4]과 같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신 것은 육신이 속성이 된 것이 아니요 영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였으니 본래의 아들이면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 본체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 또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의 영(靈)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보혜사 p. 270)

15) 김풍일은 자신이 예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암시한다.

“또 다른 보혜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속성으로 오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임을 속성(屬性)의 차원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보혜사 p. 270)

3. 결 론

김풍일은 최근에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 바 없고 보혜사도 아니며 단지 기독교백과 사전을 잘 못 이해하고 적용하여 발생한 무지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보혜사요 심판자요, 사명자요, 대언자 그리고 신적 속성을 가진 자임을 암시하는 많은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밝히고 가르쳐 왔다. 일부에서 보혜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만 변명을 했지만 다른 문제들은 전혀 언급치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과문이나 해명 설교 등은 믿을 수 가 없다. 그가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회개 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김풍일 목사는 2009년 기독교언론기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한다는 공적인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기독교포털사이트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사과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보(2009.7.1. 4면), 기독교혁신보(2009.7.25. 5면), 한국기독교공보(2009.7.25. 12면)에 김풍일 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라고 주장하거나 가르쳐 온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사람의 “씨”라고 주장하고 또한 성경을 비유와 비사로 풀고 한국을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고 하며 천국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김풍일 목사는 최근 2017년 6월 14일 세광중앙교회에서 “성경적, 신학적, 사전에 의한 보혜사 증거집회”라는 제목으로 보혜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설교하였다. 이 집회에 순서를 맡은 목사들은 개혁총회 증경총회장 정학재 목사, 합동개혁 총회장 강기원 목사, 합선총회 총회장 이병순 목사 그리고 한기총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이다. 그는 설교에서 보혜사를 사람이라 한 것은 요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는 표현이 있고 주해에 보면 이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67명의 신학대학장, 박사, 교수, 목사들이 집필한 성서백과과대사전 제5권도 보혜사를 “대언자 혹은 인격성이 있는 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보혜를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2장 1절에 대한 성서주해와 성서백과과대사전에서 보혜사를 사람인 대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보혜사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풍일 목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는 7년 전 회개하고 사과문을 낸 후로 자신의 이단성 있는 교리를 수정하였으며 자신의 교리 책자를 폐기하고 판매 금지하였다고 해명하여 한다. (이와 같은 문

제들이 분명하게 밝혀 질 때까지 1년간 예의 주시기로 한다. 101회 보고)

4. 김풍일(노아)목사의 예의주시에 대한 조사 결론

- 1) 김풍일(노아)목사에 대해서 지난 101회기 이대위가 조사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101회기 이대위원들 앞에서 7년 전에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가 참으로 회개를 했다면 자신의 잘못된 설교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모두 내렸어야 한다. “그는 7년 전 회개하고 사과문을 보낸 후로 자신의 이단성 있는 교리를 수정하였으며 자신의 교리 책자를 폐기하고 판매 금지하였다고 해명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설교는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 여전히 이단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심각한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 2) 김풍일(노아)목사에 대해서 지난 101회기 이대위가 “이미 김풍일의 저작 연구를 통해 그의 이단성이 명확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 결론을 제102회기 이대위도 그대로 수용하는 바이다.

본 제102회기 이대위는 김풍일(노아)목사의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이단사상이 있어보이므로 본 제102회기 이대위는 김풍일의 집회에 참석 및 교류를 금하는 바이다.

본 제102회기 이대위는 김풍일(노아)목사의 사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이단 사상이 있어 보이므로 본 제102회기 이대위는 김풍일(노아)목사의 집회에 참석 및 교류를 금하는 바이며 단 2018년 8월 24일 본 이대위는 김노아(풍일)씨를 최종 소환하여 그의 사상에 대하여 조사한 바 15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수정했고 잘못된 문서들은 수정내지 폐기하였다고 기독교신문에 성명서로 발표하였으며 그러나 아직도 정통교회와 다른 주장을 했던 문제성 있던 내용이 있는 것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다 삭제하기로 하며 또한 김노아(풍일) 목사가 소속한 교단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2박 3일 동안 받기로 다짐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이 실행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재론하기로 하다.

5. 정동수 목사 이단성 여부 연구 보고의 건

한동노회장 함동수씨와 삼산노회장 이봉철씨와 서전주 노회 정현섭씨와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섭씨가 현의하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목사의 비성경, 비신학적 행위 및 이단성 여부조사의 건

101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102회 총회에 보고하여 “정동수씨는 이단성이 있으나 회개하고 수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1년안에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의하였다. 그 결의대로 회개 여부를 예의 주시하며 조사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을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등에 여전히 게재하였다.



▣ 정동수(사랑침례교회)의 킹 제임스 성경과 관련 이단성 조사

1. 정동수(사랑침례교회), 그는 누구인가?

우선 정동수(사랑침례교회)의 신분을 살펴보면 그는 인하대학교 교수이면서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길 77 에코타워 12층에 위치한 사랑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시에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 PCC)의 신학대학원(Pensacola Theological Seminary, PTS)에서 문학 석사(M.A.), 2년 과정에서 신학과목 30학점(3학점짜리 10과목, 성경학, 조직 신학,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계시록, 그리스도의 사역,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2001년 성경강해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1년 미국 Bible For Today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그는 1959년 인천에서 출생하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1982년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학사), 1984년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립대학 기계공학과 졸업(석사), 1988년 미국 매리랜드 주립대학 기계공학과 졸업(박사)하고, 1988-1991년 미국 매리랜드 주립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 취직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 인하대학교로 취직이 되어 들어오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2001년 교회를 시작하여 1년 만에 그만뒀다가 2008년 5월에 현재교회를 시작하여 인천 사랑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정동수(사랑침례교회)에 대한 조사경위는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임을 100% 확신하고, 킹 제임스 성경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한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 대한 비판과 폄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 성경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돈케 하기 때문이다.

정동수는 현재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사랑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독립교회인 사랑침례교회는 약 500여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본론

정동수(사랑침례교회)의 신학적 논란의 핵심과 독특성을 중심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 1)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자체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정동수와 그의 교회에서는 킹 제임스성경 흠정역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완전한 성경과 마귀가 부패한 불완전한 성경이라는 이분법적 성경관에 갇혀 있다. 정동수와 사랑침례교회 측의 주장은 많은 사본이 킹 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본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사본을 근거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고 오히려 원본과 같거나 더 완벽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사본학적인 기본적 인식의 부족으로 보인다.

- 2)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의 역사를 통하여 원본과 같이 100% 완벽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완전히 보존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기에 원어를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우리 말과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일대일로 일치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기에 2천 년 전이나 3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원본을 찾을 필요 없이 지금 교인들 손 안에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

과 같은 보존된 성경이기에 보면 된다(정동수,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2014년11월16일 설교, 유튜브 동영상).’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들만이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타 한국교회는 다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회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동수 목사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며 자신이 주장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동수,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2014년11월16일 설교, 유튜브 동영상).

이 같은 주장들은 믿음의 본질보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절대시하고 숭배하는 행보 이상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한 상태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장하기를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 주장하여 킹 제임스 성경을 절대화, 우상화 시켜 교인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상태이다.

- 3) 정동수 목사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대부분이 공인 본처럼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을 측근들과 함께 비하시키되, 구원이 없는 성경, 불완전한 성경, 사탄이 변개한 성경, 연구할수록 이단에 빠지는 성경 등으로 폄하한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기독교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개역성경 때문이고, 개역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단에 빠지게 되며, 우리말 성경이 이단이라는 흠혈 기생충들이 우굴 거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개역성경이 아니었다면 친친지라든지 베뢰아라든지 박테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역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이단들이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성교회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매우 염려되는 바가 크다. 개역성경(한글 개역판)이 거의 모든 교리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정동수의 주장의 근거는 이 번역본이 토대한 사본들에 담긴 본문이 부패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4)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성경만이 유일하게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참된 성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본학적 입장에서 논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개역성경에 빠져있는 13구절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일반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없음이 없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면 이들의 사기행각에 화가 나게 된다. 먼저 개역성경에 없는 13구절 중 9개의 구절은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복음서의 구절들은 다른 복음서에 의해서 병행구절로 상호 보완되어 있는 구절로 교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구절들이다. 정동수는 개역 개정 성경에 13개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절 번호는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이런 구절이 없었다면 절 번호가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35).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어 갑니다. 그는 성경을 변경시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장, 절이 없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장과 절의 구분은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이뤄졌다. 구약은 1227년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라틴어 불가타 역을 이용해 장을 나눴다. 이후 나탄, 로베르 에티엔 등이 절을 구분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 숫자가 매겨진



것은 1551년 스테파누스의 네 번째 성경이 처음이었다. 오늘날 성경은 1560년 판 제네바 성경의 장, 절 구분을 따르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 번역본이 원문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유일한 번역본이라는 정동수의 주장에 대해, 하경택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는 “킹제임스성경의 이상화”라고 비판한다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769>, 2017. 3. 24.).

5) 실제적인 오류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킹 제임스성경의 오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의 콤마로 알려진 요한일서 5장 7절과 바울의 질문인 사도행전 9장 6절이다.

킹 제임스성경에는 다른 사본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이는 에라스무스가 자의적으로 삽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6) 정동수의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는 행16:31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는다(킹제임스 흠정역)”로, 개역성경, NIV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이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단어와 철자 하나에 달려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편견이며, 극단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다.

7) 정동수는 기성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교리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

그 예로 십일조, 주기도, 사도신경, 통성기도, 새벽기도, 축도 등이다. 심지어 칼빈주의 5대교리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장로교가 그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단들이 보여주는 통상적인 현상으로 기성교회를 부정하는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3.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정동수는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학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지 문학 석사 과정 신학의 개론적인과목들 10과목을 이수한 것이 그의 신학적 소양의 전부이다. 그리고 침례교 근본주의적 신학에 심취하여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마저도 부족해 보이고, 사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갖지 못한 사본학적측면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동수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오늘날 지상에 무오한 성경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킹 제임스성경만이 유일하게 보존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완전히 보존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기에 원어를 읽지 않아도 된다.’ 며 ‘우리말과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일대일로 일치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기에 2천 년 전이나 3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원본을 찾을 필요 없이 지금 교인들 손 안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같은 보존된 성경이기에 보면 된다. 고 주장한다.

반면 개역성경은 마귀가 부패시켜놓은 로마가톨릭 사본을 사용하여 모든 교리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의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채택한 개역(개정)성경은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작업이 들어간 성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동수 목사는 또한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라는 설교에서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며, 개역성경의 “주 예수”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발언하는등으로 킹 제임

스 성경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경관과 구원론뿐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교리들로 여겨지는 십일조, 주기도, 사도신경, 통성기도, 새벽기도, 축도 등을 부정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칼빈주의 5대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장로교는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하는등 교회론에도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동수는 본 위원회가 지적하는 이단성이 있으나 회개하고 수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1년안에 회개 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02회 보고)

4. 정동수 목사의 예의주시에 대한 조사 결론

정동수는 본 위원회가 지적하는 이단성이 있으나 수정하겠다고 하여 1년간 예의 주시하였으나 여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똑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할뿐 아니라 우리 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까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라 여전히 게재하였다.

그러므로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현재(2018. 8. 15)까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참여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단, 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관련 내용의 책자들을 폐기하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등에서 삭제가 확인될때까지, 2019년 5월 31일까지 시한으로 예의 주시하고 재론하기로하다.

6. 정이철 목사 신학사상 조사의 건

대구구성노회장 최봉우 목사가 정이철 목사의 신학사상 및 이단성조사를 현의하여 총회 실행위원회가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결의한 건

▣ 정이철 목사 신학사상 조사의 결과

102회기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위원회는 정이철의 신학사상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리기로 하다.

- ① 총신교수 7인이 정이철의 신학사상 문제점 분석과 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섯 가지 주제에서의 지적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정이철 목사가 지적한 면과는 서로 다른 점이 있어 보이지만 정이철 목사의 신학사상에는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② 다만 정이철 목사에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설교 강의 내용을 지적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부분이 있음에 발견하였기에 주의를 주는 바이다.
정이철 목사의 비판의 내용을 보면, 과격하고 무례함이 보인다. 어떤 사람의 글이나 강의를 보고 듣고서 평가를 할 때에는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인용해야 하고, 강의안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인용한 다음에 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이철 목사는 지적 방법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사



람의 신학사상 및 설교나 강의를 비판할 때는 좀 더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의를 주는 바이다.

- ③ 본 위원회는 정이철 목사에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바른 믿음]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교단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모두 삭제 및 글을 내릴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정이철 목사는 다른 사람의 강의나 설교 등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의 글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하는 바이며 본교단 총신대 교수들의 신학사상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한다.

7. 재심요청의 건

1) 전태식 목사의 재심요청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에서 재심을 요청한 건은 재심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하다(총회결의사항).

2) 최바울 선교사(인터콧)의 재심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장 이계석 목사)에서 재심을 요청한 건은 재심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하다(총회결의사항).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귀하
참조 : 재정부장
제목 : 이단대책사역을 위한 재정청원의 건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이단 대책 사역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재정청원 : 9,740만원
 - 1) 회의비 1,000만원
 - 2) 사업비(연구비) 8,740만원
 - 가. 이단대책세미나(전국 목회자 및 성도대상 세미나, 이단 상담세미나 8회) 3,200만원
 - 나. 이단사이비문제 연구서적발행 보급 3,000만원
 - 다. 이단사이비 연구비 1,000만원
 - 라. 광고비 840만원
(이단대책세미나 3회광고 540만원, 이단경계주일광고 2회 360만원)
 - 마. 이단상담소운영 교육 및 지원 700만원
2. 그 외 이단대책위원회 활동과 공적 세미나 시에 이단들의 소송의 건이 발생할 시에 총회에서 소송비와 행정지원을 해주시기를 청원하나이다 .

2018년 9월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서 기 유 응 상